

[에버렛 스완슨이 삼척 보육원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54-09-03
일리노이주 시카고

집 없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이 편지는 한국의 삼척보육원(Samchuk Orphanage)에 있는 고아들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편지입니다.

먼저 매월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이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들은 여전히 전쟁으로 황폐한 이 땅의 거리를 아무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잇따른 지연으로 인해 작년 가을에 지을 예정이었던 보육원 건물이 부득이하게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금은 대구의 1로버트 라이스(Robert Rice) 목사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의 판잣집에서 발생한 두세 차례의 끔찍한 화재로 말미암아 재건에 필요한 자재가 소실되었고, 그 외 또 다른 상황들로 인해 공사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월 1일경에는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저는 38 선 근처의 동해안 삼척에 있는 보육원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정부로부터 간헐적으로 지원받은 쌀과 우유를 제외하고는)을 받았습니다. 라이스 목사님은 한국인 목사님과 함께 제가 보낸 다른 기금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73 명의 어린이를 양육하는 매우 훌륭한 기독교 사역입니다.

저는 마침내 대부분의 어린이의 개별 사진을 얻을 수 있었고, 어린이의 간략 정보가 담긴 질문지를 동봉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성적표도 포함했습니다. 사본이 없으므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들은 여러분이 "입양"한 자녀들이며, 여러분의 지원과 기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의 시간만이 여러분의 친절과 관대함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들에게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라이스 목사와 모든 선교사가 이러한 상황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¹로버트 프랭클린 라이스(Robert Franklin Rice), 한국명: 나의수, 1921~): 1950년 한국으로 파송된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 한국 전쟁 중 기독교부흥협회(CRF, Christian Revival Fellowship)를 창설했고, 1953년에는 문서출판운동(<승리자 예수(Jesus Victor)>)을 시작함(<http://www.1907revival.com/bbs/view.html?idno=3375>).

어린이 양육을 위해 보내는 평균 금액은 한 달에 4 달러입니다. 건물, 학교, 음식 및 의류 등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긴급한 필요가 생길 때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기금을 사용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올가을 새 건물이 완공되면 어린이들을 "입양"하기 위한 새 후원자들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친구나 주일학교 또는 기타 그룹이 있다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도지 ²<승리의 생활(Victorious Living)> 및 기독교 서점, 그리고 이미 지원하고 있는 4명 외에 새로 지원을 약속한 15명의 전도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수백 명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큼니다.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전도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진정 선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전도자 에버렛 스완슨 올림

²<승리의 생활(Victorious Living)>: 1953년 7월부터 로버트 라이스 목사가 출판을 시작한 전도지로서 월간으로 발행되었음 (<http://www.1907revival.com/bbs/view.html?idno=3375>).